

본당 소식

♣ 말씀 KEY WORD

3월 1일	주일	사순 제2주일	삼종기도를 정성껏 바치며 주님의 뜻 새기기
3월 2일	월	사순 제2주간	오늘 하루 불평하거나 화내지 않고 '온유함' 유지하기
3월 3일	화	사순 제2주간	오후 3시(자비의 시간)에 짧게 화살기도 바치기
3월 4일	수	사순 제2주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며 창조물 보호하기
3월 5일	목	사순 제2주간	고통받는 환자들을 기억하며 성모송 3번 바치기
3월 6일	금	사순 제2주간	금욕 지키기, 예수님의 상처를 생각하며 희생 봉헌하기
3월 7일	토	사순 제2주간	부모님이나 어르신께 안부 전화 드려 사랑 표현하기

♣ 회의 / 모임

- 사목 회의 : 3월 8일 미사 후, 오라토리오
- 청년 회의 : 3월 15일 미사 후, 오라토리오

♣ 사순 판공성사 및 십자가의 길 기도

- 사순시기 판공성사 : 미사 15분 전, 성당 고해소
- 사순시기 매주 금요일 : 3월 6, 13, 20, 27일, 저녁 8시, 오라토리오

♣ 지난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190.30€ • 교무금 100.00€

전례 성가

- 입당 : 127 (십자가 바라보며)
- 봉헌 : 340 (봉헌)
- 성체 : 198 (성체 안에 계신 주님)
194 (성체 안에 계신 예수)
- 파견 : 119 (주님은 우리 위해)

전례 봉사

이번 주일(3월 1일)	다음 주일(3월 8일)
1독서: 강한 프란체스코	1독서: 강한 프란체스코
2독서: 박수정 클라라	2독서: 박수정 클라라
복 사: 안테리 소화테레사/강윤아 헬레나	복 사: 강윤이 스텔라 / 김사빈 엠마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 총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부회장: 정상현 안토니오 ·총무: 박건욱 레오
- 전례위원장: 이민찬 비오 ·성모회장: 김효경 릿타 ·외교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청년구역장: 진하림 글라라
- 1구역장: 유정연 릿타 ·2구역장: 허희숙 마리아 ·3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2026년 3월 1일

(자) 사순 제2주일

미사 전례

본기도

하느님,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따르라고 명하셨으니
하느님의 말씀으로 저희 믿음을 복돋아 주시고 영혼의 눈을 맑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
-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

제1독서 (창세기 12,1-4ㄱ)

그 무렵 1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
2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3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4 아브람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2서 1,8ㄴ-10)

사랑하는 그대여,

8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9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과 은총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은총은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10 이제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폐지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불멸을 환히 보여 주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음 (마태오 17,1-9)

그 무렵 1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2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3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4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5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6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7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8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용서의 주님, 사순 시기를 지내는 교회를 보살펴 주시어, 회개의 삶 속에서 세상 구원이 주님의 수난 고통으로 이루어졌음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2.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의로우신 주님, 외세의 침략과 억압에서도 굳건히 버티 낸 이 나라를 굽어살피시어, 주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모든 이가 화합하며 참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3.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스승이신 주님, 새 학년 새 학기를 맞는 청소년들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어, 처음 만나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과 즐겁고 기쁘게 지낼 수 있게 하소서.

4. 밀라노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치의 주님, 저희 밀라노 교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어, 하나 된 마음으로 서로 지켜 주며 저마다 사명과 역할에 충실하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영광스러운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감사하며 비오니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상 행복을 미리 맛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